

독서 REPORT

반이름 : 킹덤반 (꿈이름)이름 : 누리는 신아영

2026 년 6월 6 일

도 서 명	모모	출판사	비룡소
저 자	미하엘 엔데	쪽 수	427
1. 읽은 후 내용 정리를 위한 질문			
<p>1. 주인공 모모는 어떤 아이인가요? 가정 환경, 생활 배경, 외모와 성격 묘사, 특별한 능력까지 적어 주세요. 묘한 극장터에서 살고 있다. 키는 작고, 대단한 말랑깡이에 여덟 살인지 열두 살이 된 소녀인지 알수가 없었다 머리는 철쭉같이 새까만 고수 머리였는데, 빗질이나 가위질을 한번도 하지 않은 것 처럼 보였다. 신발은 짹짹이에 헐렁했고 알록달록한 천을 붙여 만든 치마는 복사뼈 까지 치렁치렁하게 내려왔다. 사람들이 물어볼때는 쫓겨날까봐 불안한 눈으로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가족에 대해서 말을 잘 하지 않는것 처럼 보이고 나이는 백두살이었다.</p> <p>2. 회색 신사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며 하지 말아야 할 예를 든 것들은 무엇이었나요? 시간을 낭비하는 잡담, 나이 드신 어머니 곁에서 보내는 시간, 사람을 만나는 일, 저녁 명상, 노래하고, 책읽고, 소위 친구들을 만나는 것, 불필요한 부분들.</p> <p>3. 모모에게 거북이 카시오페아를 보낸 사람은 누구였고 어떤 이유였나요? 호라 박사 모모를 지키고 그의 집으로 안내하기 위해. 또한 회색 신사들을 막기 위해.</p>			
줄거리 요약			
발단 (인물 소개)	작은 도시에는 많은 극장들이 있었지만 그 도시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게 되었고, 극장들은 많이 방치가 되었다. 그중 묘한 극장에 사는 모모를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 이후에 사람들과 모모가 함께 있으며 친분을 쌓기 시작한다.		
전개 (사건 시작)			
위기 (갈등 시작)			
절정 (사건의 종결)			
결말 (주제, 에필로그)			

♣♣♣ 사람은 곧 그가 읽은 책입니다 ♣♣♣

2. 주제를 찾는 질문

☆ 도로 청소부 메포가 말한 ““길 전체를 한꺼번에 생각하면 안 돼, 알겠니? 오로지 한 걸음, 다음 숨 한 번, 다음엔 비질 한 번만 생각해야 돼.”는 어떤 의미인 것 같은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한번에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할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

☆ 시간을 되찾은 후 사람들의 변화는 <얼음여왕>에서의 결말과 닮았습니다. 어떤 변화였나요?

☆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시대에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절약을 하고 더 효율적으로 살아가는것 보단 성실하게,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라는것 같다.

감상문

♥ 감상문 제목 :

“예컨데 일을 더 빨리 하시고 불필요한 부분은 모두 생략하세요. 지금까지 손님 한 명당 30분이 걸렸다면 이제 15분으로 줄이세요. 시간 낭비를 가져오는 잡담은 피하세요... 무엇보다 노래를 하고, 책을 읽고, 소위 친구들을 만나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 문장은 모모 6장에서 나오는 회색 신사가 하는 말이다. 푸지씨가 저축은행사인 회색 신사와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해야지 시간을 아낄수 있는지 물어볼때의 대화이다. 그냥 쑥 지나며 훑어 읽는다면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며 시간을 저축하라는 말 같을수도 있지만, 이 책속에서는 다르다. 모모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시간을 가치있게 여기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시간을 저축하며 살아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간을 위해서만 일해왔고, 사소한 만남이나 여유로운 시간은 용납할수 없는 세계가 되었다. 물론 이 도시도 처음부터 그런건 아니지만, 회색 신사들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시간을 더 저축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든것 같다.

물론 내가 현재 이런 숨막히는, 무조건 바쁘게 살아야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책을 읽고 있는 것 만으로도 답답함을 느끼게 된것 같다. 시간을 저축하기 위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갈때에 느낄수 있는 모든 편안한, 기분 좋은 순간들을 시간이라는 틀로 막고 있는게 아닐까? 그렇다고 내가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건 또 아닌것 같다. 최근들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의 사소한 만남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살아가기 위한것이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경제적인것을 위해서 좋은 자리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효율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었다.

그렇기에 작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메세지는 시간에 대한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효율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시간을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닌 다른사람과의 관계도 쌓고, 그 시간을 값어치 있게 보내라는것 같다.